

한국여성사의 획기적인 사건

## 유행(流行), 여성 패션을 돌아보다

요사이 얼짱, 몸짱 바람이 불고 있다. 그래서 정형외과, 헬스클럽 등이 호황을 맞았고 “웰빙”이라는 용어가 심심찮게 메스컴에 오르내리면서 건강산업이 새로운 유망업종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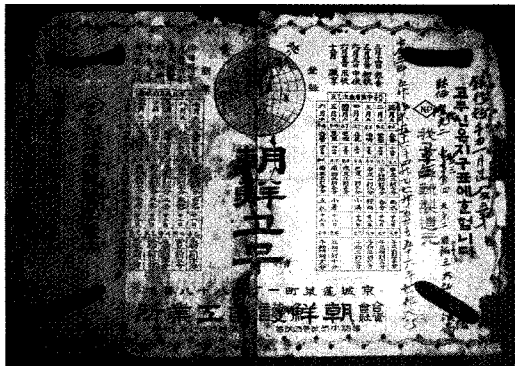
이렇게 “유행”을 부추기는 매체로 인해 대규모 소비 형태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하나의 산업화되어지는 것이 대중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.

1920년 전후로 여성사회(당시 사회활동이 가능한 기생, 학생 류)에서 칼리화 된 의상이 유행하기 시작했다.

노랑, 자주, 남색의 치마 저고리가 등장하고 여학생들간에 흰 저고리에 검정치마가 교복화 되기 시작했다.

이렇게 소박하게 시작된 여성의 유행시대를 맞이할 당시 대중사회를 주도 했던 남성사회는 양복과 증절모가 도시에서는 일상화되고 있었다.

“고무신 고무신 우리나라 신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신”



1945년 조선호모공업소월력(초기 고무신은 재래 갓신 형태였다)



1930년대 고무신 노점과 행상

